



광남일보



주간 제792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음력 7월 20일)

광주·전남 속원사업, '희망고문' 그치나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오랜 속원사업들이 하나둘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지역 핵심 현안들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확보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나 국립의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상당수의 현안사업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거나 무산돼 정부 차원의 강한 추진력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확정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AI·에너지 등 국정계획에 반영...내년도 예산도 '순항' 군공항 이전 등은 제자리...“정부 차원 강한 추진력을”

광주·전남의 주요 과제가 다수 반영됐다. 광주는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 조성, AI·MO(AI+Mobility) 특화도시 육성, 군공항 이전 및 관문공항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영산강·광주전 수변 활성화가 담겼다.

전남은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혁신, 여수 석유화학산업 친환경 전환과 예코산단 조성,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포함됐다.

이 같은 반영은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난제로 꼽혀온 현안들의 실행 가능

성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적 뒷받침도 탄탄해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3조 6616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3372억원(10.1%) 늘었고, 전남은 9조 4188억원으로 5260억원(6%)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정과제와 예산 반영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지역의 체감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광주·전남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압도적 지지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3대선에서 광주·전남은 85%에 달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직

극 견인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득·득표율로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한 만큼, 지역 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맞물려 '여당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 공약이 대거 포함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반영된 것도 이러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히 계획이 담겼다는 차원을 넘어, 광주·전남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얻게 되면서 현안 해결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표류하거나 지연돼 온 현안들이 하나둘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을 결합한 AI·MO 특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군공항 이전 등 굵직한 과제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 역시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육성 등에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나 국립의대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표류하거나 무산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태운출 미팅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테스크포스(TF)를 지시한 뒤 20년 동안 멈춰 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알림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상·의정대상

광남일보는 광주·전남의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의원의 혁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정책수행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 시킨 성과를 발굴하고 지방분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경영대상·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부문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부문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전환경, 인적자원 육성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 대상을 수여합니다. 5개 부문 이상 신청한 자치단체는 종합대상 후보자로 선정됩니다.

·광역의회 의정대상 부문

-광역의회 의정대상은 선도적 우수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합니다.

△공모기간 : 2025년 9월 11일(목) ~ 10월 10일(금)

△심사발표 : 2025년 10월 29일(수) 광남일보 지면(예정)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gnilbo2@daum.net) 접수
(※첨부서류: 대표자 증명 사진 1매·활동사진 2매 원본파일)

△시상식 :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광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최·주관 : 광남일보, (사)광남문화체육재단, 전라도인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예정)

△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 062-370-7090)



10일 광주 동구 5·18광장에서 열린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우석, 김우진, 김제덕이 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한국 양궁 리커브,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3연패'

김우진·김제덕·이우석, 미국 꺾고 '첫 금'...혼성전 김우진·안산, 은메달

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관련기사 12면

김우진(정주시청)·김제덕(예천군청)·이우석(코오롱)이 팀을 이룬 한국 리커브 남자 대표팀은 10일 광주 5·18 민주광

장 특별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에 6-0(56-55 57-55 59-56)으로 완승했다.

이날 우승으로 한국은 2021년 양커티 대회부터 이 종목 우승을 놓치지 않고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또 이번 메달로 한국은 이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남자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우승을 놓친 김우진은 김제덕, 이우석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설움을 씻었다.

앞서 김우진은 이날 오전 남자 개인전

32강에서 조기 탈락했고, 안산(광주은행)과 함께 출전한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는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금메달은 현역 최고의 공사로 인정받는 김우진의 통산 10번째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이다.

김제덕과 이우석은 통산 3번째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냈다.

한편 김제덕, 이우석이 우승을 노리는 남자 개인전 16강~결승은 11일 열린다. 여자 개인전은 같은 날 96~32강전을 치른 뒤, 12일 16강~결승전을 치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RE100 산단 조성·군공항 이전 시급”

한상원 회장, 민주당 정책간담회서 현안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대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사진)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업 건의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두 가지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한 회장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RE100 산단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며 “단순히 기존 특구와 다르지 않은 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새로운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RE100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요청했다.

또 한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한 회장은 “광주 군공항은 수십 년간 소음과 고도제한, 투자 저해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과 도시 발전에 큰 제약이 뒤따랐다”며 “그러나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